

나스닥, 국채 금리 급락으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 상승 확대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국채 금리 급락 여파로 기술주가 상승 주도

•미 증시는 부진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돼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상승.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수급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상승하자 기술주가 약세를 보여왔던 만큼 금리 하락은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요인. 더불어 엔비디아(+3.17%) 실적 발표를 앞두고 커진 AI 산업에 대한 기대도 기술주 강세 요인. 다만, 부진한 경제지표로 기술주를 제외한 종목군은 제한적인 상승이나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 진행(다우 +0.54%, 나스닥 +1.59%, S&P500 +1.10%, 러셀2000 +1.04%)

특징 종목: 엔비디아, 시간 외 7%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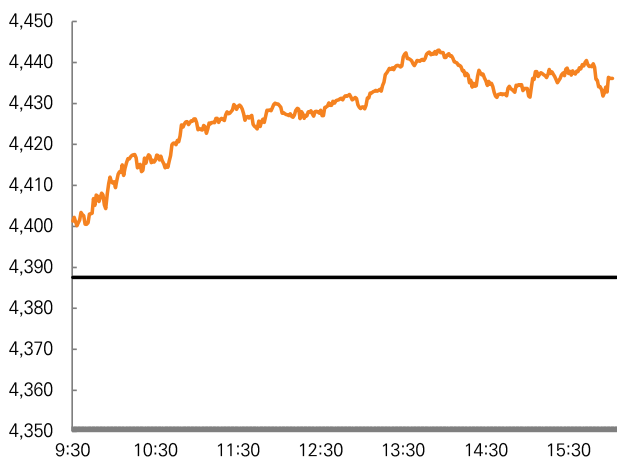
•엔비디아(+3.17%)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채 금리 하락과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맞물려 상승. 이에 힘입어 MS(+1.41%), 알파벳(+2.55%), 메타(+2.31%) 등은 물론, AMD(+3.57%),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56%), 팔란티어(+4.29%), C3.AI(+4.09%)등 AI 관련 종목군 대부분 상승.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1%, 글로벌X 로봇&AI ETF인 BOTZ도 2.11% 상승.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실적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 급증을 감안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7% 급등. 이에 힘입어 여타 시관련주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도 시간외로 상승

한국 증시 전망: 상승 출발 후 견고한 흐름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27%, MSCI 신흥 지수 ETF는 1.5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5.2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국채 금리 급락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 기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우호적. 그렇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부담. 특히 유럽 지역 침체 가능성이 확연하게 유입된 점은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7% 내외 급등한 점은 우호적. 이는 관련된 반도체 업종 등의 강세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05.50	-0.41	상해종합	3,078.40	-1.34
KOSDAQ	882.87	-1.17	홍콩항생	17,845.92	+0.31
DOW	34,472.98	+0.54	베트남	1,172.56	-0.67
NASDAQ	13,721.03	+1.59	유로스톡스 50	4,266.67	+0.15
S&P 500	4,436.01	+1.10	영국	7,320.53	+0.68
캐나다	19,879.79	+0.96	독일	15,728.41	+0.15
일본	32,010.26	+0.48	프랑스	7,246.62	+0.0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 국채 금리 급락과 기술주 강세

최근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리는 상승세. 이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가운데 부각된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에 기인. 특히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후 재무부가 지난 1일 미 정부 자금 차입 계획을 총 1조 70억 달러로 5월 발표했던 7,330억 달러보다 확대하고, 2일에는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 장기채 발행 규모를 1,03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금리 상승이 본격화. 즉 최근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연준의 매파적 행보와 수급적인 요인의 결합에 의한 것.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둔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이는 미국과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하회하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재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 경기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 때문에 25일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부각돼 국채 금리의 하락을 부추김.

이렇듯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미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최근 기술주 약세를 촉발했던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꺾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물론, 엔비디아(+3.17%)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도 기술주 강세 요인 중 하나.

한편,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7% 급등.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급증한 점을 감안 AI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GPU의 초과 수요가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에 힘입어 여타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주도 시간 외로 상승 중



엔비디아, 시간 외 실적 발표 후 7% 급등

엔비디아(+3.17%)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제 금리 하락과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맞물려 상승. 이에 힘입어 MS(+1.41%), 알파벳(+2.55%), 아마존(+0.95%), 메타(+2.31%) 등은 물론, AMD(+3.57%), 서비스나우(+1.10%), 오라클(+1.1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56%), 유아이 패스(+0.72%), 필라티어(+4.29%), C3.AI(+4.09%)등 AI 관련 종목군 대부분 상승.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1%, 글로벌X 로봇&AI ETF인 BOTZ도 2.11% 상승.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실적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 급증을 감안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7% 급등. 이에 힘입어 여타 AI관련주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도 시간외로 상승. 애플(+2.19%)은 금리 하락과 웰스파코 등 일부 투자회사들이 올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언급하자 상승. 넷플릭스(+3.48%)는 국제금리 하락과 헐리우드 최대 스튜디오가 작가들에게 공개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식, 테슬라(+1.57%)는 독일 공장 생산량 감소 소식에 하락하기도 했으나, 금리 하락과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풋 락커(-28.28%)는 혼재된 실적 발표와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으며, 분기 배당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급락. 디스 스포팅 굿즈(-0.34%)도 최근 부진한 실적 등을 발표한 후 급락에 이어 오늘도 풋 락커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 나이키(-2.67%)도 동반 하락. 펠로턴(-22.60%)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한 실적과 자전거 리콜로 인한 신규 가입자 감소 소식에 급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02	대형 가치주 ETF (IVE)	+0.93
클린테크 ETF (CTEC)	+0.08	중형 가치주 ETF (IWS)	+0.96
소매업체 ETF (XLY)	+0.80	소형 가치주 ETF (IWN)	+1.03
온라인소매 ETF (EBIZ)	+2.24	대형 성장주 ETF (VUG)	+1.48
미국 인프라 ETF (PAVE)	+1.02	중형 성장주 ETF (IWP)	+1.21
핀테크 ETF (FINX)	+1.20	소형 성장주 ETF (IWO)	+1.0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37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14
클라우드 ETF (CLOU)	+1.9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29
사이버보안 ETF (BUG)	+1.44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67	미국 국채 ETF (IEF)	+1.0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05	하이일드 ETF (JNK)	+0.82
바이오섹터 ETF (IBB)	+0.58	신흥국 채권 ETF (EMBD)	+1.53
로봇&AI ETF (BOTZ)	+2.11	물가연동채 ETF (TIP)	+0.90
반도체 ETF (SMH)	+2.1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4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3,036.80	+1.92	+3.09	-2.77
커뮤니케이션	225.05	+1.90	+1.29	+4.23
부동산	228.83	+1.46	+0.38	-5.51
산업재	902.79	+0.99	-0.08	-2.57
경기소비재	1,310.37	+0.83	+0.14	-2.13
금융	562.75	+0.81	-0.79	-4.02
필수소비재	761.79	+0.63	-1.19	-3.85
유틸리티	321.18	+0.45	+0.17	-7.65
헬스케어	1,554.70	+0.29	-0.75	-2.08
소재	508.83	+0.18	-0.14	-3.48
에너지	664.05	-0.30	+0.34	+2.9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견고한 흐름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27%, MSCI 신흥 지수 ETF는 1.5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25.2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여파로 부진. 더 나아가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중국 증시가 전일 상승을 뒤로 하고 하락하는 등 증시 주변 여건도 부담. 더불어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기업 가치와 상관 없이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가 집중되는 등 수급 쓸림도 부담. 이 여파로 KOSPI는 0.41%, KOSDAQ은 1.17%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국제 금리 급락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1%, 러셀2000 지수가 2.11% 그리고 다우 운송 지수도 1.13%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인 점도 우호적.

여기에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 기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우호적.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그렇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부담. 특히 유럽 지역 침체 가능성이 확연하게 유입된 점은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7% 내외 급등한 점은 우호적. AI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확대시켰고,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며 매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이는 관련된 반도체 업종 등의 강세를 견인할 수 있어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유럽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위축

미국 7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달 발표된 68.4만 건이나 예상했던 70.5만 건을 상회한 71.4만 건을 기록. 중간 판매 가격은 43만 6,700달러로 전월 대비 4.8% 상승, 평균 판매 가격도 51.3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 상승. 재고는 7.3개월분 쌓인 것으로 집계.

미국 7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9.0이나 예상했던 48.8보다 둔화된 47.0으로 발표. 7월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52.3이나 예상했던 52.0보다 부진한 51.0으로 발표.

영국 7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5.3에서 42.5로, 서비스업 PMI 는 51.5에서 48.7로 둔화. 종합지수는 50.8에서 47.9로 위축. 이 여파로 영국 3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

유로존 7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2.7에서 43.7로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 PMI는 50.9에서 48.3으로 둔화돼 3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종합지수도 48.6에서 47.0으로 위축.



미국 국채 금리, 부진한 지표 등으로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더불어 가솔린 재고가 89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147만 배럴 증가해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한 점은 유가 하락 요인. 다만, 원유재고가 614만 배럴 감소해 예상했던 280만 배럴보다 그 폭이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폭은 제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허리케인 여파로 기온이 하락하자 냉방 수요 둔화로 하락 지속.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 파업을 주목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은 15% 가까이 급락.

달러화는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데 힘입어 강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렇지만, 엔화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큰 폭 강세를 보이자 약세로 전환했으며, 미국의 지표 부진으로 인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달러 약세 요인. 파운드화는 경기 침체 우려 속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브라질 헤알, 남아공 란드 등 여타 신흥국 환율도 강세.

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부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결과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더불어 최근 상승에 따른 되돌림과 함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된 점도 하락 요인. 한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62배나 직전 2.68배를 하회한 2.56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지 않았지만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 약세 및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중국 경기 부양 기대로 상승. 곡물은 미 농무부의 작물 평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가뭄과 무더운 기온으로 작황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중국 상품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0% 상승했으나, 철근은 보합.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8.89	-1.43	-0.66	Dollar Index	103.394	-0.16	-0.04
브렌트유	83.21	-1.40	-0.72	EUR/USD	1.0863	+0.16	-0.15
천연가스	2.50	-3.09	-4.28	USD/JPY	144.89	-0.69	-1.00
금	1,948.10	+0.99	+0.87	GBP/USD	1.2718	-0.11	-0.11
은	24.71	+3.88	+8.00	USD/CHF	0.8781	-0.26	-0.22
알루미늄	2,179.50	+0.11	+1.70	AUD/USD	0.6479	+0.87	+0.86
전기동	8,452.00	+1.07	+3.49	USD/CAD	1.3526	-0.18	-0.05
아연	2,371.00	+1.67	+3.83	USD/RUB	94.1443	-0.05	-1.52
옥수수	490.50	+2.14	+1.71	USD/BRL	4.8532	-1.72	-2.77
밀	639.75	+1.95	+2.69	USD/CNH	7.2879	-0.25	-0.66
대두	1,360.50	+1.13	+2.85	USD/KRW	1,339.70	+0.31	+0.21
커피	153.90	+2.57	+2.19	USD/KRW NDF1M	1,325.23	-0.97	-1.1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194	-13.03	-5.66	스페인	3.542	-13.50	-15.80
한국	3.920	-6.40	+5.90	포르투갈	3.226	-13.00	-16.00
일본	0.674	+0.80	+4.40	그리스	3.843	-9.90	-10.20
독일	2.517	-12.80	-13.30	이탈리아	4.169	-13.50	-18.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